

지역복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이 인 재*

I. 들어가는 글

지방자치제의 본격화는 지역차원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발전적 전망과 동시에 실질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 나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차원의 문제해결 능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역주민들의 기본생활보장의 제일선 기관인 지방정부의 무능력함과 아울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미흡한 대처 능력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으며, 많은 사회문제들은 우리 들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차원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대처불 가능하며, 지방정부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관계에 의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경우 공공과 민간단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경험이 많지 않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의에 의한 지역복지 문제 해결 혹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이슈는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인 의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현실을 고려해 보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민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한 지역문제 대처 과제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한다.

지역복지를 주제로 지역단체들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이를 지역복지협의체라 할 수 있으

* 한신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며, 이 때 협의체에 참여하는 개별 단체들의 경우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택할 수 있으나, 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개별 단체들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 대처하는 방식으로 조직간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기관들간의 협의체 구성 및 활동과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II. 지역사회 기반 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복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고려해야 할 이론적, 실천적 쟁점은 크게 협의체의 인적 자원 즉 지도자와 참여자, 협의체를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 그리고 협의체의 조직 및 구조적 요인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Bailey & Koney, 1996).

1. 지도자와 참여자

(1) 지역복지 협의체의 지도자와 지도력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조직의 지도자와 참여자에 대한 사항이다. 먼저 조직 지도자의 지도력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지도력은 표면적으로 상반된 특성을 보여준다. 상황에 따라 지도자는 단호한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동시에 포용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훌륭한 지도력은 훌륭한 동료정신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 아니며,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공개적인 면과 폐쇄적인 면을 동시에 보유해야 한다.

둘째, 협의체의 지도자는 개척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반 구성원들이 비록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지도자는 협의체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협의체의 지도자는 전체 구성 조직들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되게 하여야 하며,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잠재적으로 협의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 공동분모를 찾으며, 개별 조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협의체의 힘이 모든 참여조직들에게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복지 협의체의 지도력을 고려할 때 먼저 과연 지도력의 구심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즉 욕구가 가장 필요한 수급자 집단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산층 출신의 사회운동가 집단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복지협의체의 활동이 넓은 범위로 볼 때 지역복지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지역복지운동의 주체에 관한 논의는 지역복지협의체 지도력 구성에 적지 않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실천가의 주도적인 활동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인재, 1995)이 우리 현실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욕구가 필요한 수급자 집단이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욕구 수급자가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천현장에서 설득력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욕구가 필요한 수급자 중심의 지역복지운동의 경우보다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운동가 주도의 지역복지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사회복지운동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회운동가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사회복지운동의 성쇠가 결정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2세대 복지권운동조직인 뉴욕 도심복지옹호센터(The Downtown Welfare Advocate Center)의 역사를 보면 초기 운동을 이끌던 2명의 사회운동가의 퇴장은 바로 조직의 와해로 이어지고 있다(Morrissey, 1990).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욕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운동의 경험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IMF이후 주요 사회적 수혜집단으로 등장한 무주택 부랑인(Homeless)들의 경우 그들의 문제는 일부 전문가들과 사회운동가들에 의해 제기되어 해결책이 모색되고, 단편적이지만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무주택 부랑인들이 주체가 된 조직적인 문제 해결 모색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경우 욕구 당사자 중심의 문제 제시 및 해결책의 모색은 주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는 무주택 부랑인들의 경우에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무주택 부랑인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들은 의존적이고 조직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집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무주택 부랑인들을 위한 정치적 행동은 무주택 부랑인들에 의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7년 메인주 포틀랜드시의 사례는 무주택 부랑인들의 자기 문제해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Wagner & Cohen, 1991). 1987년 7월 임시 무주택 부

랑인시설 폐쇄에 대항하여, 무주택 부랑인들은 '무주택자와 빈민들의 존엄성연합(the Coalition for the Dignity of the Homeless and Poor)'이라는 조직활동을 통해 시청청사 접거를 거쳐 공원에 집단 텐트촌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텐트촌의 형성은 지역언론의 관심을 가져 왔으며, 결국 무주택 부랑인 운동 전문가의 중재에 의해 시로부터 지속적인 임시거처 마련, 일시부조 지급, 근로연계 프로그램의 철폐 그리고 시 정책의 홍보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 고충처리위원회가 결성되어, 무주택 부랑인 혹은 과거 무주택 부랑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동료 옹호인'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운동의 경험은 물질적 혜택의 증가라는 결과 외에도 운동참가자들에게 '연대감', '자기강화력(empowerment)', '재사회화'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운동에의 적극적 참여의 동력을 제공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를 정리하자면,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복지협의체의 지도력과 관련해서 수급자 집단이 지금 당장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지역복지운동가와 지역복지전문가 중심의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항상 그 문제로 가장 고통받는 집단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수급자 집단이 미래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지역복지협의체 참여자

지도자의 지도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다. 협의체의 활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개별 조직 대표자들은 조직으로부터 합법적 권위와 관련 집단들로부터 신뢰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그들은 협의체의 활동을 위해 가치있는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화로운 체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비록 신념의 차이가 있더라도 상호 조화의 원칙하에 목표를 조정하면서 공동 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Bailey & Koney, 1996). 특히 수혜자 집단 출신의 구성원들의 조직활동은 그들에게 자조와 자기강화(empowerment)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Morrissey, 1990).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의 경우,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협의체에의 참여 동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가 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경험은 구성원들의 조직에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구지역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운동의 사례(이인재, 1998)와 미국 AFDC 대상자 조직의 사례(Morrissey, 1990)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1994년 대구지역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협의회가 7개 단체 참여하에 구성되었으나,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편의시설의 추가설치 약속 이후

지속적으로 이 과제를 추적하지 못하고, 협의회 조직 활동을 중단하고 말았다. 미국 복지권운동의 초기 역사를 주도하였던 전국복지권연합(National Welfare Rights Organization)은 애초 복지수혜자들을 주 대상으로 지역운동가, 자원봉사자, 빈민지역 활동가, 교회 지도자들을 회원으로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집단고충처리,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서비스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운동의 결과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혹은 기존 대상자의 경우 추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 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협의체의 회원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즉 전국복지권연합 지도자들은 구성원들을 계속해서 협의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전국복지권연합은 결국 빈민을 위한 정치조직으로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회원을 빈민들에 한정하지 말고 대상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갈등을 빚다가 결국 쇠퇴기로 접어들고 만다.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구성원을 계속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과제가 중요한 의제의 하나가 된다.

2. 환경으로서 지역사회

개별 조직체의 경우 외부 환경의 영향력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복지 협의체의 경우 외부환경, 특히 주요 외부환경인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협의체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는 협의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협의체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협의체의 환경과의 관계는 상호의존성의 증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복지 협의체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에 있다. 기본적 생활의 보장을 위해 협의체 활동가들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책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의무는 공공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적용되는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규정하는 과제(지역복지기본선)에 대해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내야 한다.

지역사회는 지역복지 협의체가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원 제공처의 역할을 해야 한다(Coulton, 1996).

1) 일자리 제공과 복지인프라 구축

먼저 지역사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특히 저소득층의 저기술 노동인력을 얼마나 지역사회가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기본 생활보장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리고 일자리 마련과 함께 저임금 노동인력과 노동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사회내의 저기술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면 과잉의 저기술 노동력으로 인한 임금의 지속적 감소와 저소득층의 지역적 밀집에 의한 부정적 학습효과로 인한 빈곤 세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자리 없는 지역사회(Jobless community)에서는 일반인들의 보편적 삶의 양식이 확산되지 못하며, 주류 사회의 일상적 규범과 경제생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2세대에게는 긍정적 자기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보편적 일자리보다는 비공식부문 시장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2세대의 경우 성인 이전애 가족을 돌보거나, 청소년 비행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성공에 대한 희망을 대신하게 된다.

지역복지협의체의 일차적 관심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2) 안정적 생활의 보장

지역사회는 경제적 차원 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과 치안과 같은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나 일탈과 같은 행위는 일자리를 얻는데는 물론이고 산업발전에도 중요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강한 내부 응집력은 물론이고 치안활동과 같은 외부 통제기제도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조직화를 통해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아동양육, 지역정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안정된 생활의 보장에도 기여해야 한다.

3) 교육시스템 정비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교육 훈련 체계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의 하나이다. 지역의 정상적 교육기관과 취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평생교육시스템은 지역의 고용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복지협의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의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기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교육

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일을 위한 제도적 정비

지역복지협의체는 지역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나아가 지역사회내 연대감의 확대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취업희망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스템의 마련, 고용주들의 고용인에 대한 편견의 해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시설 증대 등 지역적 인프라의 구축, 조세제도와 산업정책을 통한 일자리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조직 및 구조적 요인

지역복지 협의체의 경우 지도자와 참여자는 주요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고려하면서 협의체의 존재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목적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과업과 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 및 체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볼 때 지역복지 운동의 활성화는 복지정책의 탈중앙집중화(decentralization)로부터 시작된다.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인보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지역복지운동의 기반은 탈중앙집중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초로서 지역사회의 등장에 있다(Estes, 1997). 이러한 특성은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시작된 복지 개혁의 흐름으로 연방정부의 역할 감소와 주정부로의 권한 이양, 이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복지의 '지방분권 혁명'(devolution revolution)으로 연결되어 1996년 부양아동가족부조(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의 폐지와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의 대체로 나타났다(Bailey & Koney, 1996; 이선우, 1999). 복지의 지역분권화는 지방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위협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지원 예산 삭감과 Medicaid와 같은 자격 부여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s)에 대한 주 정부의 책임 강화에 따라 결국 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즉 주 정부의 예산을 확대하거나 혹은 서비스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받는 급여를 축소하는 것이다.

지역복지관운동의 효시로서 토인비 홀(Toynbee Hall)의 성공은 토인비 홀이 서비스 제공 센터 이면서 동시에 조사연구의 중심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행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한 사실에

기인한다. 선진국의 지역복지관 운동의 전통이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로 소개되면서 중요한 정치적 행동과 조사연구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오직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만 남게되었다(Estes, 1997).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었으며, 지역사회복지관의 이러한 축소된 역할모형은 1980년대 들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역사회복지사업에의 참여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미국 복지권 운동의 역사를 보면 사회복지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절한 소득(adequate income), 정의(justice), 존엄성(dignity), 민주주의(democracy)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Kornbluh, 1998).

적절한 소득은 사회복지운동단체의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임금이 보장된 일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복지를 통해서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공평한 재분배에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복지정책 및 조세제도의 정비는 물론이고 집단행동까지 다양한 전략, 기술적 고려가 필요하다.

정의는 복지수혜자들의 법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가를 고려하는 것이며, 존엄성은 시민권의 보장과 소비자로서의 주권 행사, 그리고 여성의 모성보호 등을 통한 존엄성 보장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지역주민들의 완전한 참여와 공공정책 수립과정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지역복지 협의체의 전략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능력과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개별 사회조직들은 그들이 최대한의 지역사회의 욕구들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며,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유일한 서비스 제공자라는 환상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간의 협의체를 통해 공동 과업을 통해 더 많은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협의체의 전략인 것이다.

지역복지협의체의 과업 선정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승리할 수 있는' 이슈(winnable issues)를 발굴하는 것이다(Morrissey, 1990). 이것이 비록 협의체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는 미흡하더라도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단기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슈의 개발은 지역복지 협의체 참여자들의 동기부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복지 협의체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전략적 고려 중 하나는 조직 구성원들의 이탈을 방지하면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행동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즉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에 치중한다면 협의체의 발전은 힘들

것이다.

협의체의 개별 과업들은 협의체의 기본 목적(purpose)에 기반한 개별 목표(goal)들 그리고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objectives)에 부응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과제의 제시는 조직 발전의 핵심 전제인 창조성과 혁신의 부재, 참여자들의 동기부여의 하락에 따라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약화시키게 된다.

목적과 목표에 기반한 과업의 제시는 과업의 주체, 과업의 내용, 과업 수행의 방법에 대한 구체성을 내포하게 되고,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비용보다 얻게되는 편익이 더 크게 되어 참여자들은 협의체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략, 목적 그리고 과업 수행에 유리한 구조 및 체계의 수립에는 정답이 없다. 필요에 따라 공개적인 영역과 비공개적인 영역을 동시에 포함하며, 때로는 경성적 조직구조가, 다른 한편으로는 연성적 조직구조가 필요하게 된다.

Ⅲ. 맺는 글

이상에서 지역차원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고려해야 할 이론적, 실천적 쟁점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았다.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인적 자원으로 지도자 집단과 참여자 집단의 특성과 사회문제로 가장 고통받는 수혜자 집단의 지도력 문제와 그들의 참여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역복지협의체를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의 존재 의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체의 목적, 과업과 전략적 고려사항 그리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구조 및 체계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여기에 지역사회 민간영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적 힘이 합쳐질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물론이고 실천 사례에 대한 분석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본격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운동의 흐름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이인재, 1999). 이러한 경향들을 반영하면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이선우(1999). "미국의 사회복지: 1996년의 복지개혁-쟁점과 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 이인재(1995).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사회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26호.
- 이인재(1998).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주민참여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상황과 복지』 4호, 인간과 복지.
- 이인재(1999).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현실과 대안』 제2호.
- Bailey, Darlyne and Kelly McNally Koney(1996). "Interorganizational Community-Based Collaboratives: A Strategic Response to Shape the Social Work Agenda", *Social Work*. V.41 no 6 (November. '96).
- Coulton, Claudia J.(1996). "Poverty, Work, and Community: A Research Agenda for an Era of Diminishing Federal Responsibility", *Social Work* V.41 no 5 (September, '96)
- Estes, Richard J.(1997). "Social Work, Social Development and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Social Work*. V. 40 (Jan. '97)
- Kornbluh, Felicia(1998). "The Goals of the National Welfare Rights Movement: Why We Need Them Thirty Years Later.", *Feminist Studies*. V. 24 no 1(Spring '98).
- Morrissey, Megan H.(1990). "The Downtown Welfare Advocate Center: A Case Study of a Welfare Rights Organization", *Social Service Review* (June '90).
- Wagner, David & Marcla B. Cohen(1991). "The Power of the People: Homeless Protesters in the Aftermath of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Social Problems*, V. 39 no4 (November '91).